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제적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가는 나 어린 애국가,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소년단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6월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주제조선의 자랑이고 희망인 우리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세게 자라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7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곁곁에도 뵈고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천만사랑으로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

을 열렬히 축하하시며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서장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드려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가무 《대원수님 우리와 함께 춤을 추셨지요》, 합창 《장군님과 아이들》, 2중창과 합창 《소년단백타이 매고계셔요》, 민요제창 《내나라는 아이들 세상이야》, 체육무용 《해님의 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기악과 노래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작품 《세상에 부럼없어라》, 옛말무용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옛이야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노래련곡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언제나 곁에 있어요》, 무용 《아동단원 금순이》, 가요금과 장고 《제일 좋은 내 나라》, 민족기악과 노래 《행복의 꽃대문》, 무용 《해빛넘친 승마장에서》, 《스키야영 신나요》, 교예 《나를 좀 봐》, 복제창 《만리마라고 더 빨리》, 경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은 종장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터져오르며 장내는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의 공연성공을 축하하시며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도시민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사철 정상적으로 보내주자면 공업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김치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으며 공장이름을 몸소 《류경김치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남새생산기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에 류경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공, 발효, 숙성 등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통김치생산공정, 깍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빼곡이 들어있었다고 하시면서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김치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통풍체계를 잘 세움으로써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김치들을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인기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각이한 재료들의 배합비율과 숙성시간 등 생산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김치가공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장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김치의 맛과 냄새, 색깔이 매우 중요한것만큼 김장용남새와 양념원자재들을 바로 선정하고 원자재를 생산보장하는 단위들에서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건설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각 도들에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해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치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이며 세계 5대건강식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시면서 류경김치공장에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를 집들에서 담그어 먹는것보다 더 맛있게 만듦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김치,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민족전통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가가 높은 갖가지 신선한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상업봉사망들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세월은 류수라 했다.
 온 겨레를 환희와 격동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여 번지게 했던 2000년 6월 15일.
 그때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어연 열여섯번째의 년륜을 감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한다.
 하지만 6.15통일시대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남긴 자욱은 참으로 거대한 것이었으며 그 생명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진폭을 울리며 겨레의 마음속에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밤하늘의 새벽처럼 통일운동의 앞길을 밝혀주고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6.15통일시대가 있어 온 겨레는 충격과 감동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으며 또 통일조국의 무궁번영할 래일을 그려볼 수 있었다.
 민족의 위대한 역사속에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민의 투쟁이 있고 그를 병도한 위인의 자욱이 있는 법이다.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어 자주통일의 역사적리정표가 마련됨으로써 조국통일

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잠깐 여기서 력사의 시계바늘을 16년전으로 돌려놓는다.
 《화창한 날씨속에 빨간주단이 깔려있는 평양비행장의 모습과 함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TV를 지켜보던 모든이들은 진률을 느껴야 했다. 두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만남은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감격의 최절정이었다.》,
 《나는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 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지는것 같았다. 멍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것만 같다.》

이렇듯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남측 수뇌분과 함께 조선인민군 료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비오며 온 겨레는 비범한 예지와 통이 큰 결단, 거침없고 활달

하신 그이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고말았다.
 국제관계사에는 무수한 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6.15북남수뇌상봉처럼 온 세계에 커다란 파문과 격정을 불러일으킨 상봉, 그처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회담을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고결한 품모, 뜨거운 동포애로 분열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의 순간순간을 성공의 절정에 이끄시었다.
 평양상봉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 수뇌분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합이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시고 이번엔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일찌기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진군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념원과 의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에 의하여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의지와 개개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에 겪고있는것은 더 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라고,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다고, 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우리가 량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언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자주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신념과 숭고한 통일애국의지가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가 있어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고 이 땅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얼어붙었던 55년 분열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이 메아리쳤고 《반갑습니다》의 노래가 백두산에서 한나산으로, 우주에 퍼져갔다. 우리 민족은 돌로 갈라져서는 못할 하나의 유기체라는 확신과 더불어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진리가 삼천리에 새겨졌다.

불신과 대결만이 지속되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끓여졌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렸다.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이 활발해지고 다양하고 폭넓은 협력과 교류로 민족의 뉴대감은 더욱 두터워졌다.
 당국자들사이 회담은 100여차, 채택된 합의서만도 근 170건, 북남래왕인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00만 명을 넘어섰다.
 6.15가 펼쳐준 민족화해와 단합의 거세찬 흐름속에 헤쳐져 수십년 세월 생사조차 알 길 없었던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얼싸안는 감격적인 상봉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고려의 옛 수도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맛볼수 있었다.

진정 6.15북남공동선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이며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현 《정권》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6.15통일시대를 부정하면서 민족의 통일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고있다.
 허나 그 어떤 힘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겨레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은 대세이고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높은 연단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최복실

민족이 가장 평범의 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16년이 되어오지만 우리 겨레는 지금도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강산에 차넘치던 통일열기, 저 멀리 미래의 꿈으로만 여겼던 통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앞에 사람들 누구나 기뻐하고 열광적인 환호를 울리지 않았던가.

이것은 바로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졌던 6.15통일시대, 반통일세력의 매국매족적인 행위로 하여 식어버린 통일열기를 또다시 불러오 시켜 공화국을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임을 엄숙히 선언하시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온 민족을 불러일으키시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들은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을 한사코 부정하며 대결의 길로만 줄달음쳐왔다.

미제의 사족하에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매일같이 화약내질을 불장난소동을 일으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해로 몰아갔으며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것이냐 다름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온 겨레는 나라가 분열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분상 일일천추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것을 바라고있다.

이 요구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도, 꺾을수도 없는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아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일찌기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진군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념원과 의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에 의하여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의지와 개개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에 겪고있는것은 더 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라고,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다고, 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우리가 량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언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자주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신념과 숭고한 통일애국의지가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가 있어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련석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련석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임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탁월한 로선과 방침

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최상의 방략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이며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애국의지의 정화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의 어버이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었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 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온 민족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인 조국통일로선을 일관하게 틀어

주고 통일의 대통령을 힘있게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정당한 통일방향이 있기에 우리의 통일위업은 필승의 위업이며 우리 민족의 력사적숙원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결기, 총매진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련석회의에서는 김명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준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이 토론하였다.

련석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조국강토는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것은 머지않아 도래할 자주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세계와 백두와 한나를 한가슴에 끌어안는 담대하고 진정넘치는 호소는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온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고있다.

절세의 위인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방략에는 험난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가 역척의 기둥으로 세워져있고 하나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가장 공명적대하고 현실적인 방도로 응축되어있다.

자주통일방략이야말로 민족이 나아가갈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항도의 해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절대적리정표이다.

천갈래만갈래 길은 많아도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장벽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휘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민족의 길은 오직 이 하나뿐이다.

사상과 정견, 제도를 달리하는 해내외 각계각층이 지금 절세위인의 위대한 호소에 심장으로 뜨겁게 화답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하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은 민족사의 흐름을 거역하며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에 무분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통일문제해결에 직접적책임을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조선반도의 위기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개선해나가는 진정어린 제안을 《비핵화에 대한 의사표명도, 진정성도 없는 제안》이라느니, 《지금온 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체제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 평화공세》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꾀변으로 부정화나서고있다.

지어 괴뢰군부장관들을 내몰아 서해열점수역에서 천인공노할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정세를 또다시 극단적인 긴장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이 대결의 양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있으며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질풍노도치는 자주통일의 대격랑속에서 거품처럼 밀려나는 반통일분자들의 단말마적품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필승의 기치는 진두에서 높이 휘날리고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신심과 기세는 그 어느때보다 총천하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적대와 대결의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총매진해나가야 할 천금같은 시각이다.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너는 무엇을 바쳤는가. 조선사람의 피와 땀을 지냈다면 누구이든 시대와 력사의 이 엄숙한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오늘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려는 불타는 열념으로부터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통일철학이며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도 마련되어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최고리익을 역척으로 수호해나갈 자주적의의 실체와 위력은 이미 내외가 공인하고있다.

피땀바쳐 마련한 최강의 국력으로 분렬의 년대기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통일과 민족번영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의 의지는 비할바없이 강렬하며 오늘 우리가 말하

는 자주의 참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도 무엇이 모자라 그 누구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여기저기에 통일문제해결을 구걸하겠는가.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전성기를 맞이한 태양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을 폐부로 절감하라!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자주적생명개척의 새시대를 열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난제가 없고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자주적으로 하자!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강해지며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희생시키며 자국의 탐욕적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외세의 부당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셔버려라!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렬이다.

한세기가상 미일 두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오며 사대와 외세의존이 근성화된 남조선에서 그 저주로운 사슬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릴 때는 왔다.

동족의 편에 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비참한 과멸을 당하겠는가. 량자택일의 기로에서 제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제 살길이나 찾겠다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섬겨바치며 통일을 가로막는 추악한 사대매국노들을 추호도 용서치 말자.

2.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사는 민족대단결의 력사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한들 하나의 강토에서 수천년동안 함께 살아온 하나의 겨레, 하나의 피줄이 어찌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질수 있단 말인가.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무슨 장애로 될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있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으로 겨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잡던 6.15시대의 격정과 환희가 생생히 살아있다.

가슴에 넘치던 혈육의 정, 애국의 피를 다시금 뜨겁게 끓여 민족대단결의 거세차고 장엄한 대화를 이 땅우에 펼치자!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의 물고를 뜨고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자!

지나날 비록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통일에국의 길을 함께 가자는것이 절세의 애국자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더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겠는가.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위업에 헌신분투하자!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친일매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만고역적들의 추악한 몰골을 잊지 말라.

력사와 후손앞에 통일애국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겨갈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참되게 질자!

대결과 적대의 광풍이 아무리 사나워도 화해와 단합의 애국적열풍을 절대로 이길수 없다.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을 리간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자.

3.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삼천리조국강토를 영원히 투쟁을 모르는 평화와 안전의 보금자리,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만들자!

우리 민족은 수수천년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사랑해온 평화애호민족이다.

라민족을 침략하기 위해 돌 하나, 활촉 하나 날려본적이 없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족이 령강들의 전횡과 침략, 간섭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더구나 미국이 조선반도를 돌로 갈라놓고 전쟁의 참화를 들춰운것도 모자라 남조선을 핵전쟁전초기지로 만들고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현실을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다.

과연 언제까지 이처럼 천만부당하고 통분할 현실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이어가야 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파

괴하고 삼천리강토를 핵전쟁의 불도가니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광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바란다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침략과 전쟁의 운상인 미제침략군을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반미성전에 떨쳐나서자!

참된 평화는 총대우에 있으며 불의를 이기는 정의는 가장 강력한 자위적전쟁역제력이다.

우리의 핵보유와 군력강화는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의 실질적담보로 되고있다.

누구나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급이 민족에게 안겨주는 혜택을 옹기 헤아려보아야 하며 이를 《위협》이니 뭐니 하고 매도하는자들의 내적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예리하게 까밝혀야 한다.

지금 정세안정에 가장 큰 우환으로 되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이다.

한치않도 내다볼줄 모르는 대결광신자들의 경계망동이 남조선전체를 수습할수 없는 재앙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리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불행과 재난을 몰아오려는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용납치 말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시키자.

온 겨레가 조선반도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롭고 행복한 락원으로 바꾸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자!

4.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강국의 빛나는 운지를 세계의 하늘높이 받아들여리자!

북남수뇌분들이 민족안에 확약하고 온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련방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유일무이한 우리 민족의 통일방식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북과 남은 어차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울수밖에 없다.

8천만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통일이 전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되며 그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련방제통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 민족이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할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우리는 통일강국건설에서 그 누구를 본받을 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고 우리의 땅에 어울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의 집, 우리 식의 통일강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제도통일》, 《흡수통일》의 위험성과 반민족성을 똑똑히 가려보고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

누가 누구를 붕괴시키고 어느 제도가 타방에 흡수되겠는지는 시시각각 썩어 무너져가는 반동적통치체제에서 살고있는 남조선인민들 자신이 더 잘 알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날로 강건해지고 눈부시게 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무지와 몽매의 산물인 어리석은 《흡수통일》의 망상에서 깨어나 련방제방식의 통일애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우리 제도의 《붕괴》를 꿈꾸며 계속 무분별하게 도전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천년세월 참고 참았던 분노와 증오를 총폭발시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고 단숨에 남조선 전 지역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것이다.

5.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줄로를 열자!

지금 북남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로 최악의 질실상태, 빈사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리익과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협조를 하고 있는 때에 동족인 북과 남이 세기와 년대를

넘어가며 서로 반목질시한것도 모자라 전쟁의 문턱에 서있는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기울인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과 진정어린 제안들에 무분별한 최고존엄모독과 《체제붕괴》꾀변으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다.

하기에 누구나 이제 북남사이에서 그 어떤 평화적대화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물리적계산만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세위인께서는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과거도 다 포용하고 험난한 진멸길도 헤쳐가시려는 비범한 결단과 대응으로 남조선당국을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시고 북남관계개선의 합리적인 길을 다시금 제시하여주시었다.

특히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된다.

이를 외면하고 거부해나서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끝까지 동조하여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몽둥이를 던지겠다는것이냐 다름없다.

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민을테라고는 미국뿐인 남조선당국이 지금 상전의 부추김밑에 철부지처럼 날뛰고있지만 현실은 팽폭하다.

제 잔등도 민을수 없는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미제국주의의 본성이다.

하물며 그들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주구의 명줄을 지켜주겠다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정적시각에 자기 목숨을 내댈수 있겠는가.

그런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소롭고 황당무계한 착오가 아닐수 없다.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전체조건은 우리의 핵포기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매하고 암둔한 남조선당국이 자기환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시간은 많아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이 시각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내민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것이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누구나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력사적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비약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뫼를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개최할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을것이다.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세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계층이 적극 호응할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이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앞에서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통일대업을 앞에 두고 외면하거나 방관시할 권리가 없다.

위대한 태양의 빛받따라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열정으로 온몸을 활활 불태우며 통일강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그 이름 만방에 빛날 위대한 통일조선 만세!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소년단체대표들이 모교로 돌아갔다.

한없이 소중한 체험을 안고 앞날의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 크나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평양을 떠나간 것이다.

그들이 평양에서 보낸 나날은 불과 며칠밖에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 나날 한생을 두고 쓰고도 남을 가장 소중한 인생의 량식을 받아안았다. 아직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리며 음식을 부릴 아이들이건만 그들의 애된 가슴들마다에 뜨겁고도 열렬한 애국의 녀이 굳건히 자리잡은 것이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가 온 나라의 관심과 기대속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으며 소년단체대표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도 관람하시었다.

이것은 앞날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을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고 이 땅우에 전설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낳은 감동깊은 화폭이라고 할수 있다.

옛말에 《곡식을 심으면 일년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십년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키우면 백년후가 든든하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문제를 국사중의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는 땅

국사로,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분분초초를 쪼개시는 바쁘신 시간도 통채로 내어주신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서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뜨거운 축하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는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온 나라의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동해명승에 일떠선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 야영생들을 위

한 전용철차와 역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옥류아동병원, 온 나라의 곳곳에 새로 건설된 옥아원, 애육원들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정말이지 세계의 곳곳에서 래일은 고사하고 오늘에 급급하며 불안과 탄식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있는 때에 공화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높이에서 최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고있는 것이다.

오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난관도 적지 않고 할 일도 많다.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

와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아직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후대들을 위한 일을 소홀히 하는 근거로는 될수 없다는것, 다른것은 참을수 있어도 아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지는 것만은 참을수 없다는것, 다른 일은 좀 미루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며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정책이며 립장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나라에서나 시련의 시기에는 어린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로 되어왔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제일 선차적인 관심사로, 중대사로 된것은 후대

문제였으며 아이들의 얼굴에서 선 언젠한번 자그마한 근심이나 그늘도 찾아볼수 없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는 공화국을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나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였다.

그 사랑이 이 땅의 아이들에게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었고 조선의 래일을 떠받들 주인공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겨주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우뚝 올려세워야 한다는 애국의 녀

과 웅대한 포부, 아름다운 꿈과 건전한 정신을 소중히 심어주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애지중지 키운 꽃봉오리들이 어제는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억척같이 조국을 지켜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영소로 떠나는 아이들을 야전차의 차창에서 바래워준 아이들이 오늘은 만리마시의 주인공들로 어엿이 성장하였다. 지금이 시각도 이 땅의 새 세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치며 래일의 사회주의강국, 통일조선의 주인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이것은 바로 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 사회주의강국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무궁무진한 힘을 낳는 또 하나의 원천인 것이다.

해방전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쓴 이름난 아동문학작가였던 방정환은 민족의 후대들을 사랑해줄것을 원하는 마음을 글줄에 담아 이렇게 썼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것입니다. ...》

좋은 말이다.

아이들의 천진하고 깨끗한 맘막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의 녀를 새겨주고 사심없고 열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바람, 찬바람을 다 막아주며 열과 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애지중지 키워주는 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며 바야흐로 세계의 상상봉에 거연히 설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이 땅에서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만리마의 기상을 떨치며

오늘의 꿈이 래일에는 현실로 되는 이 땅우에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사람들 모두가 조선속도의 창조자, 만리마의 기수가 되려는 마음을 안고 떨쳐나섰으며 이는 곧 바다에서 비약의 단계들에 굽직한 획을 긋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있다.

한해에 새 거리들을 하나씩 일떠세우며 분과 초를 주름잡아 오늘이 다르고 래일이 다른 전변을 펼쳐놓는 변혁의 일본세에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시간표는 앞당겨지고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민중변영의 휘황한 앞날을 위한 최후승리의 진군길에서 그이께서는 찬비내리는 날 찾으시였던 건설장을 먼지바람 부는 날에 또 가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었다.

료원의 거세찬 불길도 한 점의 불꽃으로부터 시작되듯 온 나라에 타번지는 조선속도와 만리마의 기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강행군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난 3월이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그때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최악의 긴장상태에 놓여있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인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들면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장 극악하고 비렬한 《제재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내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 일본, 남조선 등지에서는 《독자제재》라는것들을 련이어 발표하며 공화국을 최대로 압박해왔다.

거기에 적대세력은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소동까지 벌리며 최악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을 불구름을 몰아왔다.

세계가 초점을 모으며 지켜본 공화국에서는 공포의 뒤걸음이나 주춤거림이 아니라 거세찬 만리마의 퍼덕임소리가 들려왔다.

제재와 압살의 포위환속에서 조국은 자강의 힘으로 웅대한 수도건설계획의 설계를 펼치었던 것이다.

그 이름도 려명거리! 보통의 건설공법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방대한 건설공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실 담대한 목표를 내세우시고 온 나라 인민을 불려일으키시었다.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 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 살수 있다는것을 푹푹히 보여주자고 힘있게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구상을 받들어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들은 누구나 만리마의 기마수들이 되어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립체전, 전격전의 불길속에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착공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이룩된 놀라운 성과들은 더 좋은 행복의 래일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의 남김없는 파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의 설계도따라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그 뒤를 따라온 나라가 힘차게 내달리며 최후승리의 려명을 부르는 것이 오늘 공화국의 장엄한 현실이다.

조국땅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조선속도, 만리마의 기상과 더불어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사회주의강국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1) 온 민족을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워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하고 융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시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일제의 칼날아래 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면 온 민족이 들고일어나 하루빨리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하나로 튼튼히 결속되어야 하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자주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라는것을 통찰하시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바쳐오시었다.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서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사람이건 백사람이건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견해였다.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이 없다고 할수 있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령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있을때까지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적인 립장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경륜이고 민족대단합의 신조였다.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위대한 경륜에 의해 주체 25(1936)년 5월 5일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그 첫 조항으로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것을 열렬히 호소한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역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을 담고있다.

조국광복회창립은 우리 인민이 민족주체의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하게 선포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민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떠밀어가는 전환점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업에 직면해있다.

조국통일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원아들

- 평양미림학원을 찾아서 -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의 배움터

부모없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평양미림학원은 청신한 주변환경을 자랑하는 평양시 사동구역에 자리잡고있다. 평양미림학원이 생겨난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이다. 주체63(1974)년 5월 평양시당 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시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원을 내오고 운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운영에 필요한 교편물들과 약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친히 원아들을 위한 공기기준표까지 보아주시며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있어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학원의 문은 한번도 닫힌적이 없었고 언제나 원아들이 터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평양미림학원은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오는데 여기서 소학반과 초급반, 고급반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아들이 배우는 과목수나 교수내용은 다른 일반학교들과 똑 같다. 과정안에 따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같은데서 야영의 한때를 보내기도 한다. 졸업후에는 희망에 따라 사회의 여러곳으로 진출하는데 대학에 가기도 하고 또 인민군대에 입대하기도 한다. 흔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을 학교라고 말하지만 학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먹고 자기도 할뿐아니라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노래를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그래서 원아들은 학원을 가리켜 자기들의 정든 집, 행복의 배움터라고 하는것이다.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

설움중의 가장 큰 설움은 부모없는 설움이라는 말이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고아라는 말자체가 불행과 슬픔의 대명사처럼 불리고있다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

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원아들은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제일 좋고 훌륭한것들이 제일 먼저 원아들에게 돌려지고있기때문이다.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일체 학용품들과 생활용품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보장해주고있다. 최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일떠선 민들레학습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종류의 학습장들이 원아들에게 남



먼저 안겨져 기쁨을 더해주기도 한다. 이번이 아니다. 훌륭하게 꾸려진 기숙사에서 원아들은 맛있고 영양가높은 음식과 간식들을 정상적으로 먹으며 튼튼하게 자라고있다. 학교선생님들과 식당로리사, 관리원들이 친어머니심정으로 원아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이처럼 훌륭한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이 보장되고있는 곳에서 원아들은 그들 한점없이 밝게 웃으며 마음껏 배우고 뛰놀며 명랑하게 자라고있는것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원아들이다. 하기에 학원의 원아들이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가 있다.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원아들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기도 한 이 노래에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어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이 나라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를 《꿈의 에너지》로 불리운다. 대기오염이 전혀 없을뿐아니라 혼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것으로 하여 에너지원천이 무진장하기때문이다. 오늘날 수소에너지를 대한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는데 우리 자원개발투자회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 자원개발투자회사에서 지난 2014년 5월 상해에서 열린 국제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기술응용전람회에 첨단수소발생기술과 수소제품을 내놓았던적이 있다. 사실 그때 이런 전람회에 처음 참가하는 우리로서는 꼭 시험을 받으러 가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전람회참가자들의 반응은 상상밖이었다. 전람회기간 마지막날까지 찾아와 합작을 희망하는 기업과 소형수소발생장치를 제작해줄것을 의뢰한 기업, 수차례에 걸쳐 수소가스공로의 기술비결을 료해한 기업, 전시물판매를 요구하는 대학연구소와 국가중점기술연구중심, 공동연구를 하자고 초청하는 과학원일행, 수소난방설계와 관련한 우리의 기술수준을 료해하는 기업 등을 비롯하여 2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람홍색공화국기가 새겨진 조선의 전시대앞으로 그칠새없이 모여들었다. 서방의 어느 한 기업가는 우리가 내놓은 수소발생장치와 짧은 시간동안에 닭알을 삶아내는 수소가스공로시제품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강병이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첨단기술을 개발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이것이 결코 조선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일수 없다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고 머리를 가로짓는것이였다.

전망이 밝은 수소에너지

정말로 오만하기 그지없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 서방언론들이 얼마나 공화국에 대한 외곡선전에 열을 올렸으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보고서도 인정할수 없다는 말까지 늘어놓았겠는가. 그러거나말거나 우리 공화국의 첨단과학기술수준은 날을 따라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다. 우리 자원개발투자회사에서는 지금 해당 기술의 개발과정에 장악한 6가지의 핵심기술들을 국내특허로 등록한데 이어 국제특허등록을 위한 신청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8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국제특허공보번호(WO-2015/125981)를 받았다. 또한 우리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1m³/h~20m³/h까지의 수소발생기에 대한 국가규격을 받음으로써 첨단수준의 산업용수소발생기제작의 국산화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합법적인 생산허가와 법률적도대를 마련하였으며 많은 단위들과 각종 규격의 산업용수소발생기도입과 관련한 기술합의를 진행하고 설계를 마치였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100세대짜리 아파트에 가정용수소가스공로와 수소난방장치, 지능형로색에너지 전력망체계와 같은 우리 식의 자연에너지가정용물체를 시범도입할 목표를 세우고있다. 그것이 실현되면 혼한 물에서 분리한 수소로 밥을 짓고 수소를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는 꿈아닌 현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자원개발투자회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앞으로 수소에너지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세계를 앞서나가는 첨단기술들을 련이어 개발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것이다. 자원개발투자회사 과장 김길선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কি중환것 (10) ◎

청년강국의 위용

얼마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해불행진은 청년강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청년강국! 이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다. 청년강국의 고귀한 부름은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 하시면서 새 세대청년들이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는데 대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의 선봉대, 주력부대로, 미래의 운명을 걸머진 골간부대로 내세우시고 항일의 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조선청년의 기상과 의지는 새 조선건설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 위훈의 금별로 아로새겨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마련된 청년중시의 고귀한 전통을 꽃잎이 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90년대 중엽 청년조직의 이름을 아버지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세기의 하늘가에 새겨주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청년중시, 미래사랑의 명언도 내놓으시였다. 청년들에게 백두의 넋이 깃든 주체의 해불봉을 넘겨주시고 청년전위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장군님의 손길아래 199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났고 수령의 부름, 조국의 부름이라하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배우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자라났다. 오늘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젊음에 넘치신 그이의 령도아래 조국이 젊어지고 공화국은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조선청년들이 행성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상정신적특질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흠모하며 따르는 마음이다. 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령도자의 뜻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

쟁해나가는 청년대군, 선군의 총대에 서리발치는 수호의 기상, 남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결한 정신적품모로 하여 청년강국은 더욱 존엄높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청년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울리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의 구호는 조국의 젊음을 더해주는 청춘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청년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은 또 얼마나 많은가. 꽃나이치너시절에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치너어머니》, 화려한 도시를 떠나 최전연심마음 교원이 된 청년들, 동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선배들의 아들딸,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된 청년들.

사상과 신념으로 강건하고 정신도덕적으로 훌륭하며 슬기와 용맹에서 담찬 청년들의 대부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대집단이 청년강국의 참모습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어 시대와 력사의 변두리에 밀려

나 방황하고있다. 오늘 세계적 인 청년실업률은 13%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포부와 열정을 강그리 짓밟힌채 비판과 절망속에 모대기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내는것이 자본주의사회 청년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맡아하고있다. 청년들의 모습에 오늘날아니라 래일의 모습이 비낀다.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충정으로 가슴끓이고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굳건하고 필승불패이며 영원히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고수하고 일관하게 리행해 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첫조항으로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 엄숙히 선언하였다. 10.4선언 역시 첫조항에 북과 남이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것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맞게 옹호 바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의 생존장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가도 해결할수 없다. 민족분리의 지난 70여년 역사는 우리 겨레에게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는 철리를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사대

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나갈데 대한 투철한 자주사상, 대단결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혀주고있는 이 명제는 바로 그 어떤 외세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갈데 대한 강한 자주적진,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뿐아니라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리향제안과 남측의 리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 밝히고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역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

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의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군사분계선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강이 도도히 굽이치고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변도 일어나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북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시켰다.

지나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대단결도 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감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련방제실현에 평화통일의 길이 있다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열된 때로부터 어언 70여년, 어느 한시도 우리 민족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은적이 없다. 겨레의 뼈아픈 고통을 한시바삐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사적사명감에서 심혼을 기울여 진로를 모색해왔고 북과 남이 마주앉아 통일론의도 해왔다.

이 나날에 평양에서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 통일실현의 현실적조건에 부합되는 실천적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울려 나왔다. 또한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리향제안과 남측의 리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이 허심하게 마주앉아 통일의 진로를 밝히고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과 함께 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리향제방식의 통일을 내외에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한 특

기할 사변이 아닐수 없다. 너무나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서로의 다른 사상과 제도, 비록 사상과 제도는 다르지만 하나의 민족, 하나의 피줄이 분명한 조선민족을 하나로 다 담아 안을수 있는 길이 리향제실현에 있고 조국강토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게 할수 있는 평화통일의 길도 바로 리향제실현에 있다. 조국통일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으로, 민족지상의 과제로 되고있는이상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의 장애로 될수는 없다.

만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리향제만큼 더 좋은 실현방도는 없고 리향제만큼 공명정대한 방안은 없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리향제를 통일시종일관 주장하여 왔고 지금도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노력과 성의를 다 기울이고있다.

이번에 열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공화국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리향제방향을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뚜렷이 천명하였다.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아량과 포용의 따뜻한 손길도 내밀어주었다.

그런데 과연 남북은 어떻게 나오고있는가.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는 등을 돌려대고 허황한 《제도통일》의 망상에 집요하게 매달려 《북핵압박공조》를 구걸하기에 여념이 없고 《단호한 응징》과 같은 악담만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이것이 과연 평화통일을 바라는 처사인가. 《제도통일》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제도통일》시도는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빚어내게 된다.

공화국은 참된 삶의 터전인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장 귀중히 여긴다. 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적도 없고 강요하려 하지도 않는다. 지금의 시점에서 체제대결이 불러올것은 충돌과 전쟁위험밖에 없다.

평화통일의 최선의 방도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리향제를 실현하는 길밖에 더 다른 길이 없다. 반대로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담한 《제도통일》만을 고집하다가는 언제 가도 통일이 실현될수 없고 자멸밖에 차레질것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화국의 정당한 애국의 호소에 하루빨리 응해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김련옥

통일적대시정책이 북남관계안정화의 기본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적화해를 막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도 하루빨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자면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북남관계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그 발전을 추동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가 사상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바로 남조선당국의 동족적대시정책으로부터 초래된것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금껏 걸으로는 그 무슨 《신뢰》와 《관계개선》을 떠들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동족이 아니라 외세를 우선시하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만을 추구하고왔다. 외세를 향해서는 《〈한〉미동맹강화》를 력설하면서 동족에 대해서 《압살》과 《붕괴》를 노린 대결소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대해 《불가능한 목표》이니, 《도박》이니 하고 악의에 차서 혈투는 가 하면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에도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그 무슨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준비위원회》니, 《통일대박》이니 하는것들도 모두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어리석은 기도에서 나온것이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일련의 합의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송두리채 날아난것도 역적대당의 동족대화결판때문이며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거듭되는 제의와 노력에 대해 《진정성결

여》니, 《화전량면전술》이니 하며 항상 등을 돌려댄것도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 등 동족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적대행위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 《중복》으로 몰아 부당하게 박해, 탄압하며 동족대결을 앞장에서 고취해나갔다.

《방어》의 거치장스러운 면사포마저 벗어 던지고 《평양점령》과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을 내놓고 공언하며 광란적으로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를 사상 류례가 없는 최악의 대결관계로 몰아갔다.

모든 사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져야 하며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체제붕괴》를 추구할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립장에서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명시되어있다.

그중에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도 밝혀져있다.

이것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숭고한 사명감에서 출발한것이다.

남조선에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장치가 많다.

그중에서도 《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파쇼악법이다.

《보안법》은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사회적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

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 단체들을 《좌경공공세력》, 《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구성과 가입, 그 활동과 지원을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애국적 활동을 범피시하고있다.

《보안법》에 의해 남

연구포럼 대표 황선이 재미동교수 신은미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진행한 공화국 방문소감에 대한 순회강연이 북의 체제를 선전하고 찬양하였다며 《보안법》위반에 걸려 중형을 들먹은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인권법》 역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

호침몰사건이라는 회세의 반공화국모략극을 구실로 조작된 악명높은 《5.24조치》와 현 보수집권세력들이 꾸며낸 《테러방지법》 등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대결조치이고 악법이다.

남조선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결악법들은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관계 개선에도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지나온 역사는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북남관계도 순조롭게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키자면 남조선에서 그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결시대의 잔재인 《보안법》은 세기가 바뀐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진보적인사람들이 《보안법》상의 《죄》명을 쓰고 가혹하게 탄압당하였다.

남조선당국이 회망정치

나라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동족대결악법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조작된 《북인권법》에는 인간쓰레기들의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와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지원하는것을 합법화하고 범죄적인 《북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등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에 의해 《천안

사건》을 비롯하여

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조선당국이 회망정치



김연희

《하늘땅도 눈을 감고 호곡한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심미선, 신희순 두 녀중학생살인사건을 두고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이 남조선의 어느 한 대목이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다가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남조선강점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두 녀중학생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수습에 달하는 장갑차에 짓이겨진채 생죽음을 당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끔찍한 비참함과 가슴찡기는 아픈 심정을 당시 남조선 언론이 이렇게 전했다.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소리가 터져나온것이 어찌 이때뿐이겠는가. 산나물캐는 소녀를 《평》이라고 하며 쏘아 죽이고 송유관결에서 놀고있던 3살 난 어린이를 《도적》이라고 쏘아 죽였는가 하면 수백명의 화순탄광 노동자들을 눈섭 하나 까딱함이 없이 무참히 사살하고 윤금이녀성을 잔인하게 총혹하고 사살한것 등 미군의 더러운 군화발이 닿는 곳마다에서 원한의 피가 끓없이 흘러 울분과 분노의 호느낌소리가 이 하늘, 이 땅에 그칠새 없었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오늘날 강점군의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강간, 살인, 도적질과 같은 폭행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미국이 남조선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세균전실험을 감행했다는 것도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서울에 있는 통산미군기지에서 지카비루스실험을 추진하고있는 사실이 폭로되는데 이어 얼마전에는 생화학전쟁계획인 《슈퍼터게획》을 부산항에 있는 미군시설에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서슴없이 해치는 행위를 예나 지금이나 미군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너무나도 빠졌이 해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 누가 청하지도 않은

강점군이 있는 한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계속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군의 존재를 마치도 신성불가침처럼 여기면서 지어 해내비처럼 섬기고 거기에 저들의 운명을 의탁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쓸개빠진 처사는 더 눈이 감긴다. 집안에 강도가 들면 쳐부시고 내쫓아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강도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강도가 들었는데도 오히려 강도에 게 제 집을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미국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계속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군의 존재를 마치도 신성불가침처럼 여기면서 지어 해내비처럼 섬기고 거기에 저들의 운명을 의탁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쓸개빠진 처사는 더 눈이 감긴다. 집안에 강도가 들면 쳐부시고 내쫓아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강도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강도가 들었는데도 오히려 강도에 게 제 집을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미국

에서 미군철수문제가 튀어나올 때조차도 부산을 떨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무슨 큰일이나 난듯이 《동맹의 균열조짐》이니, 《외교와 안보에 커져 버린 비상등》이니 하고 야부채기를 치는가 하면 상전을 쫓아다니며 《미군철수의 향을 라진》한다 어쩐다 하고 북새통을 피우고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느니, 《미군유지비분담금확대에 린색할 시기는 지났다.》느니 하는 나발들이 남조선집권세력 내부에서 거침없이 울려나오고있는 형편이다.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백주에 나어난 소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처참하게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군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청탁하고있는 남조선보수 당국의 처사야말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명백히 민족분열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주되는 화근이다. 따라서 모든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

본사기자 황진옥

가만히 있는것이 현명한 처사다

그러나 기회만 생기면 허가 닳도록 《북핵압박공조》와 《응징》을 부리는 대결열병환자의 말기증세를 보니 이제는 가련하고 불쌍하게만 여겨진다. 그렇게도 시대적요구와 지향에 대한 감각이 없

는가. 미국도 어찌지 못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전략적지위가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집권자가 《북핵》, 《응징》하고 양탈을 부린다고 달라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는 자위의 보검, 평화의 보검이다. 공화국이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해나가고있기에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이 오늘 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공화국과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의 강경보수층속에서도 나오고있는것이 오늘 현실이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바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미꾸라지 룡꿈꾸는 《흙수통일》야말로 대결정책에만 몰두하고 《종북》소동만 벌리고 나중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작은 통일》이라고 부르던 개성공업지구까지 전면중단시켰으니 집권자에 대한 민심의 불만은 분노로 터지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공화국과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의 강경보수층속에서도 나오고있는것이 오늘 현실이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바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미꾸라지 룡꿈꾸는 《흙수통일》야말로 대결정책에만 몰두하고 《종북》소동만 벌리고 나중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작은 통일》이라고 부르던 개성공업지구까지 전면중단시켰으니 집권자에 대한 민심의 불만은 분노로 터지고있다.

악화된 북남관계가 언제 전쟁으로 터질지 모르는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집권자의 케케묵은 《선비화해, 후대화》가 아니라 동족과의 관계개선과 신뢰구축을 강하게 들고 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응징》이니, 《자멸》이니 하는 따위의 분별없는 대결악담을 늘어놓는것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만을 드러낼뿐이고 비참한 종말을 재촉할뿐이다. 남조선집권자에게 한마디 충고하고싶다. 가만히 있으라.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요구하는 민심에 《가만히 있으라.》고 최후악을 뿌리고 파쇼공동이를 들것이 아니라 집권자 자신이 가만히 있는것이 낫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기간에 지구가 깨어져도 실현될수 없는 《북핵포기》망상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더욱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 남조선집권자는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나 가려보고 입 조심하고 손발 주의하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10억 ¥에 무엇을 팔려고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 《지원재단》을 설립 하려고 분주함을 피워내고 있다. 그것도 《정부》급이 아닌 민간단체의 《재단》이다.

일본이 던져주는 10억 ¥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다, 10억 ¥이다. 일본이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대가로 남조선에 던져주는 《기부금》이 10억 ¥이라고 한다.

그나마도 남조선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해체해야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쓸개빠진 남조선의 위정자들, 매국노들은 감지하지하여 《배상금》이라고 제먼저 운운하며 일본의 흉심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바라는것은 일본의 피비린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의 녀성들이 일제의 마수에 유린당한 그 치욕과 피눈물의 역사를 어떻게 몇푼의 돈으로 지워버릴수 있겠는가.

일본이 사죄를 했는가. 지난해말 일본은 과거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군부의 책임으로 어물쩍 넘기기도 《사죄》했다고 머리를 쳐들었고 배상이 아닌 《지원금》으로 10억 ¥을 준다면서 배를 내밀었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거기에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도장까지 눌러주었다.

10억 ¥, 줍스럽고 간교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속통이다.

민족자존심도 없는 속물인, 외세에 대한 노예적근성이 뼈속까지 배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몸값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과 인류는 사

죄도 없이 배상금도 아닌 《기부금》을 준다 안 준다 야스겹게 노는 일본의 행동에서 정치후진국의 저렬성, 파렴치성을 다시 볼수 있었다.

그런 일본의 비위를 맞추느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어물쩍 넘기려는 매국집단, 민족반역집단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이 더욱 드러났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불과 10억 ¥으로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재침야망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해외침략의 굴레를 벗어던진 일본은 올해에는 《헌법개정》 등으로 법적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있으며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날뛰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은 시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재침의 칼을 가는 일본군국주의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침략의 길잡이, 하수인 어물쩍 넘기기도 《사죄》했다고 머리를 쳐들었고 배상이 아닌 《지원금》으로 10억 ¥을 준다면서 배를 내밀었다.

미국의 부추김 밑에 3각군사동맹의 이불속에서 뱀년속적과 동침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정적 군사적모의와 결탁을 강화하는것은 물론이고 군국주의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합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등 남조선을 일본에게 서슴없이 개방하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일본군성노예 《지원재단》을 설립한다고 돌아치는것은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이 상처를 입

든 상관없이 저들의 동족대결야망,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한 민족반역행위인 것이다.

일본군성노예 《지원재단》문제로 본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 그들은 《황실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일제에게 놀아나 《을사5조약》에 도장을 찍고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이나 몇푼의 돈을 받고 일본의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준 《유신》 독재자나 다를바 없는 매국노들이다.

사회와 배상, 일본과 끝까지 청산해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적책무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넋을 팔아 치부를 하고 더러운 정치적운명을 부지해보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적망동을 단호히 결산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지금의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다져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와 야망있는 호소에 《진정성》이니 뭐니 하며 원색기를 쪼고 《도발》, 《응징》 등 대결악담을 늘어놓으면서 비렬한 적대행위를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대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데 리용하고있는것도 그 실례이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천안》호가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5.24조치》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함께 진상을 밝히자는 공화국의 요구도 뿌리치고 그것을 오늘까지 동족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활용하고있다.

《천안》호는 2010년 3월 미국의 북침행전쟁연습에 동원되었다가 원인

미국이 아시아지배전략 실현을 위해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달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을 3각군사동맹안으로 더 바싹 끌어들이기 위한 모의를 벌린것도 그 선상에서 진행된것이다.

미국은 《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느니, 《확장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이 3각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강요해나섰다.

또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영향력을 운운하며 일본과 남조선에 손을 들어주고 손아귀 《동맹자》들을 아시아 지역안보망에 끌어들이기 위해 책동하였다.

모르게 침몰된 남조선해군함선이다.

《미군잠수함과의 충돌》설, 《좌초》설 등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들이 돌면서 이 배의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집권세력은 사건이 일어

망둥어 튀니 꼴투기도 된다고 일본도 3각군사공조와 공화국의 핵, 미사일에 대처하는 《공조》를 운운하며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과 직통전화개설 등 남조선이 저들과의 군사교류협력문제에 나설것을 요구해나섰다.

신랭전으로 질주하는 삼두마차

동족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못마땅해하는 남조선 호전세력은 《북핵공조》 구걸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강압에 머리만 조아리었다.

이렇게 미국은 아시아안보회의를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

권을 강화하는 모의관으로 만들어 3각군사동맹의 울가미를 더욱 조이였다.

3각군사동맹강화의 첫걸음으로 이달말에는 하와이 근방에서 미국주도하에 일본, 남조선이 참가하는 《미싸일정보훈련》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랭전으로 질주하는 삼두마차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군부우두머리들은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목표로 하는 침략전쟁연습인 《림팩》 합동군사연습직전에 벌어지는 그 훈련이 공화국의 미싸일 《도발》에 대처한다는것을 내놓고 떠들고있다.

강화되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은

단지 공화국만을 겨냥한 군사공조가 아니라 조선반도를 벗어난 아시아침략, 아시아지배를 위한 위협천만한 군사적결력이다.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의 강화는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대립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랭전을 부르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허물어보려고 일본과 남조선을 손탁에 거머쥐고 대조선적대시정책, 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광분하는 미국, 미국의 힘을 빌어 《보통국가》의 너울을 쓰고 아시아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전쟁머슴군으로 앞장서 서려는 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굴레를 쓴 삼두마차는 신랭전을 예고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명수

《호》를 보면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는 각오와 담력, 배짱을 더욱 굳게 다진다.

공화국에서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반미대결전의 정리품인 《푸에블로》호를 통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돋구어 주고있는데 남조선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을 겨냥한 미국의 침략전쟁연습에 내몰렸다 가 자랑된 《천안》호를 동족대결의 선전물로 리용하고있으니 참으로 자주와 예측, 존엄과 굴종의 판이한 두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오늘 자주적인 정치군사공국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과 비굴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몰락하는 남조선의 차이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김영춘

《푸에블로》호와 《천안》호

나자 형식적인 《조사내용》을 벌려놓고 《북의 어뢰공격》으로 단정해 버리였으며 그것을 구실로 북남협력력을 차단하는 《5.24조치》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함께 진상을 밝히자는 공화국의 요구도 뿌리치고 그것을 오늘까지 동족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활용하고있다.

《천안》호는 2010년 3월 미국의 북침행전쟁연습에 동원되었다가 원인

호가 절로 떠오른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공화국령해에 침입했다가 나포된 미국의 무장간첩선이다.

《푸에블로》호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야망과 적대시정책의 물적증거이며, 동시에 오만하고 과립치한 미국을 띄우주르듯 다블리며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한 공화국의 위상을 떨친 전리품이기도 하다.

통령이하 미국내에서 터진 비명들이다.

공화국에서는 《푸에블로》호를 1950년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를 사료적으로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기념관옆에 끌어다놓고 당시의 민중적존엄과 반미자주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강권과 오만, 파렴치성으로 빛어진 미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푸에블

괴뢰정보원깡패들의 비렬한 유인람치범죄 행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괴뢰정보원이 우리 공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에 매달리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내외에서 우리 인민들을 백주에 유인람치해간 괴뢰패당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남조선 각계에서 괴뢰정보원이 강제역류하고있는 우리 인민들과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지난 3일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괴뢰정보원에 유인람치된 우리 인민들과의 면담을 요구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괴뢰정보원은 저들의 친인공노할 죄악이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부당한 구실을 붙여 끝끝내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지난 5월에도 괴뢰정보원은 민변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강제역류되어있는 우리 인민들과 관련하여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면담요구를 무작정 묵살하였다.

지금 괴뢰정보원깡패들은 유인람치만행의 주범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에게 쏠리는 내외

의 거센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획책하고있다.

특히 강제로 람치해간 우리 인민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갖은 회유기만과 협박공갈로 어떻게 하나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으로 조작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에 대한 유인람치만행이 청와대의 지시밑에 괴뢰정보원이 치밀하게 작전하고 현지에서 감행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괴뢰정보원깡패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주위에서 어떻게 신분을 위장하고 어떻게 비렬하고 교활하게 놀아냈으며 어떻게 유인람치행위를 감행하였는가를 낱말이 장악하고있다.

동족을 유인람치하여 대결에 악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뢰정보원이야말로 해외의 반체제인사들을 백주에 람치하여 남산지하실에 끌어다놓고 가혹하게 고문, 학살하여 세인을 경악시킨 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박정희 《유신》 독재때의 중앙정보부를 방불케 하고있다.

이런 시기에도 괴뢰정보원깡패들이 해외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에 피눈이 되어 돌아왔지

만 지금처럼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람치행위를 백주에 거리낌없이 감행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

세계의 면전에서 감행되는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파멸에 처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괴뢰정보원깡패들의 유인람치행위를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무지막지한 괴뢰정보원과 같은 정탐모략기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백해무익하며 하루빨리 매장되어야 한다.

괴뢰정보원을 동족대결과 암살을 위한 추악한 음모와 모략의 소굴로, 치명리는 레오깡패집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죄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괴뢰패당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친인공노할 유인람치범죄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하고 그 주범인 정보원을 단장 해체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끌고 간 우리 인민모두를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있는 상시청문회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강압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사회각계로부터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통독재 《정권》이라는 규탄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론들은 당국자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날로 악화되는 민생에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리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 추악한 과벌싸움과 권력쟁탈전으로 시간과 날을 보내고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들에게 침을 뱉고있다고 조소하였다.

본사기자 서 희

제거하려 하는 동향까지 보이고있다. 남로 혐악해지는 위기에 바빠맞은 《새누리당》은 《3자회담》이요 뭐요 하는것을 황급히 별려놓고

《혁신비대행위원회》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당대표격인 위원장을 외부에서 끌어다 앉혀놓았지만 내부갈등은 가라앉지 않고있다. 게다가 집권자는 인민들의 커다란 지지환영을 받고

본사기자 서 희

최근 남조선인론이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군상층부가 썩을대로 썩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장성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면서 라태하고 안일해이한 생활에 몰겨어 군지휘능력을 상실한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장성이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군장성이 되면 그에 따른 대우가 장교때와는 대비할수도 없게 높아진다고 한다.

그중 몇가지를 보면 전속부관과 운전수, 서류정리와 음료심부름을 하는 《당번병》, 청소를 맡은 《공관병》, 로리를 맡은 《조리병》 등이 소속되고 제대후에도 현역때와 별로 차이나지 않는 년금을 지급받으며 안락을 누린다.

탐욕에는 끝이 없다고 지나친 부귀와 권력에 쫓겨든 남조선군장성들은 군업무보다는 부정부패행위로 돈주머니를 불꾸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자가 군안에 만연된 《방위산업비리》는 안보를 해치는 《리직행위》라고 하면서 《정부합동수사단》까지 조직하여 본격적인 수사놀음을 벌려놓았지만 아직도 그 뿌리를 들추어내지 못하고있는것은 《방위산업비리》에 군장성들이 깊숙이 개입되어있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구조함 《동영》 호남품부정부패사건, 《해상대잠직승기구매》 부정부패사건, 방란부정부패사건 등 모든 《방위산업비리》에 군장성들이 편袒되어 있지만 하급장교와 같은

승사리들만 처리하기때문에 근원을 없앨수 없는것이다.

한편 남조선군장성들은 돈벌이를 위해 부대 위수구역안에 훈련장보다는 골프장부터 먼저 차려놓고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있으며 지어 죽은 사병들의 조의금까지 횡령하고있을뿐아니라 부대안에 《상조회》를 비롯한 사조직을 꾸려놓고 여기에 기금을 바치도록 사병들을 강박하

려져나오고있다. 이에 바빠난 남조선군부는 현재 육군 310여명, 해군 50여명, 공군 60여명, 해병대 15명으로 모두 440여명에 달하는 군장성수를 300여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어쩌다 하며 분주량을 피우고있다.

웃물이 온통 흉량투성이다보니 아래물이 어찌 맑을수 있으랴.

남조선군하층 또한 병영내에서 막을수 없이 성행하고있는 구타와 폭행, 성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로 하여 그 기강이 말이 아니다.

이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는 너무나도 뻔한것이다. 이렇듯 대가리와 몸통이 다 썩은 부패의 무리, 오합지졸들을 가지고 《제도통일》, 《승공통일》의 개꿈을 꾸는 남조선당국자들도 가관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행위에 매달리고 해외에 나다니며 그 누구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하여 구걸하기에 앞서 제 집안실태를 바로잡는 데나 관심을 돌리는것이

떡 험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군장성들의 대부분이 혼련을 비롯한 군업무보다는 부화

후 중장이상 군장성들의 70%가 개인별로 70여만US\$에 달하는 재산을 불구었고 8명의 대장급 장성들의 《착복액》은 100만US\$를 훨씬 넘는다고 하니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이겠는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군장성들의 대부분이 혼련을 비롯한 군업무보다는 부화

본사기자 김혜성



망하는 집안의 개싸움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의 추악한 과벌싸움과 권력쟁탈전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새누리당》은 극심한 내부분렬로 하여 창당후 처음으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소집이 무산되고 임시당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희비극이 창출되었는가 하면 당내 계파갈등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체와 비박근혜파의 퇴진, 박근혜파와의 결별 등으로 심화되어 《《새누리당》 분당설》과 《정계개편설》까지 나올 정도로 분

렬와해상태에 이르렀다. 비박근혜파들은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박근혜파가 당을 공중분해시켰다.》고

개탄하고있는 반면에 박근혜파는 계파갈등을 야기시킨것은 비박근혜파라고 공격하면서 《사태수습을 위한 비박근혜파와의 협조는 필요없다.》,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당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비박

단편소설

불을 부르는 소리 (4)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2
림하영은 옷깃새로 사정없이 스며드는 산산한 느낌에 진저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설은 바다가에 웅기웅기 서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비로소 진도에 도달았음을 깨우쳐주었다.
주위는 소란하였다. 욕을 퍼붓고 호느끼고 악을 쓰고 까무라치고... 망들 같이 목직한것에 가슴이 지지들린듯 숨이 콕 막히는 광경이었다.
아비규환의 분위기로 보아 《전원 구조》는 역시 오보였는가. 끔찍한 일이 터지게 확실하였다.
(정현인 수영 잘하는 데... 살았을수 있어. 아니, 살아있을거야.)
림하영은 불길한 예감이 심술뜩게 솟아날가봐 힘껏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누구에게라 없이 조심조심 물었다.
《저- 구조된 사람들 어데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
한 중년남자가 시름이

의 옷차림을 훑어내었다. 《혹시... 선원들 아니야?》
누군가 불쑥 던진 추측의 말에 눈에 뜨이게 허둥거리는 구조자들의 거동과 눈빛이 수상한 느낌을 한층 더 불러일었다.
《아아, 이리저 마십시오. 물러들 서시오.》
바빠난 해양경찰이 인파를 헤가르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구조자들은 까투리마냥 틀어박은 고개를 도무지 들림을 못하였다.
《맞죠, 저들 선원들이지요?》
이번엔 한 녀인이 경찰을 붙들고 따지었다. 경찰은 대답을 못하고 눈길을 피할뿐이었다.
폭발적인 분노와 참담한 심경이 승선자가족들의 가슴가슴을 휩쓸었다.
《어디 그럴수 있어? 애들은 어찌라고...》
《선장도 여기 있냐? 나서라!》
《너들도 사람이야? 이 개같은것들아!》
《내 새끼 살려내라, 살려내!》
주먹을 부르치고 분격을

터치던 가족들은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무성게 달려들었다.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짹짹대는 구조자이건, 막아서는 경찰이건 관계치 않았다. 멍살이며 옷깃을 탈아취고 울며 불며 욕을 퍼부었다.
중장된 해양경찰들이 가까스로 가족들을 떼어내었다. 구조자일행은 서둘러 풍지를 사렸다.
모자며 견장, 천조박이 너저분한 부두바닥에 퍼



더버리고 앉은 가족들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경주야-》
《은지언니야-》
《수진이, 이 자식아-》
속수무책의 안타까움으로 애라하는 그들의 곡성에 팽목항은 금시 박산날 것만 같았다.
공포는 추위를 몰아왔

다. 림하영은 온몸에 엄습하는 랭기로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억이 막히면 울음조차 선뜻 나오지 않는 모양인가. 림하영은 핵- 하고 숨을 삼키고나서 피덩이뻘듯 겨우 토막 토막 말을 내었다.
《이렇게 추운데 저 물속은... 정현이... 얼마나 추울가.》
막막한 마음에 림하영은 바다 멀리로 눈을 주었다. 잠풍한 날씨의 덕으

로 바다속으로 각일각 잠겨드는 거구의 《세월》호가 우렁이 보여왔다. (저 배다. 내 아들이 지금 저안에 있어.)
앞뒤를 분간키 어려워진 림하영은 다짜고짜 바다에 뛰어들었다. 얼음같은 바닷물을 밀어제끼며 막 앞으로 나가려는데 주위에

서 야단이 일었다. 첩첩철첩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왁살스러운 손길들에 잡혀 끌려나와보니 해양경찰들이었다.
《놔요! 아직 건질수 있잖아. 누가 날 건지래요? 애들이나 건져요!》
막무가내로 악을 쓰는 림하영을 말리며 가족들까지 증을 냈다.

《혼자서 뭘 어쩌다는 거요? 그러지 않아두 속타는데 좀 자중하오.》
아들때문에 생을 이어오고 아들로 하여 강해진 림하영이었다. 어쩌면 아들을 다시 못볼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하였다. 생의 의미도, 목적도, 기력도 감감 찾을길 없었다. 림하영은 이 시각 불안과 허탈의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이 그지없이 미웠다. (그럴수 없어, 그릴수 없어.)
림하영은 지푸레기라도 잡고싶은 허망한 기대를 꺾이 버릴수 없었다. 안간힘을 쓰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애바른 마음에 허겁지겁 뛰어다녔다. 잠수부를 찾아서 대느라 갖은 신고를 다 하였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선지 민간인잠수부의 구조활동이 허락되지 않았다. 《세월》호 가까이로 실어다 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사

정도 하였다. 그것도 헛수고였다. 위험하다는 미명아래 저절당하고말았다.
림하영은 기슭에 퍼더 버리고 앉아 마른가슴을 치고 또 쳤다. (어쩌면 좋담.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수만 있다면 당장 독실한 신자도 되고 서슴을 그 무엇도 없으려면 그저 안타깝지만 하였다. 악을 쓰며 지켜온 행복이 이렇게도 산산조각날수 있을가. 이때 귀익은 음성이 들렸다.
《진정들 하세요. 인츰 소식이 있을거래두요.》
승선자가족들에게 불들린 해양경찰청의 한 정복쟁이가 사정조로 하는 말이 있었다.
깡뻑한 그 모습이 낮익었다. 다시 기운을 돌이켜 한달음에 달려간 림하영은 그의 소매에 매달렸다.
짜증기어린 얼굴이 핵돌려지다가 두눈에서 핏꽃음이 버릴수 없었다. 《어, 하영이!》
가물에 단비같은 고향녀인의 출현에 정복쟁이는 정도이상으로 환성을 올렸다. 진땀을 뿜던 성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안도감에서였다. 주변에서들 쳐다보며 어정해있는 기회에 그는 림하영을 한권구석으로 슬쩍 이끌었다.